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0월 23일(주일) 제1414호



사진은 지난해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한계 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10월 22~23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작성, 전화, 홈페이지 참여

CGNTV가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10월 22일(토)과 23일(일) 실시한다. '한계 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을 주제로 열리는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

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기후원 약정서에서 증액후원 또는 신규후원을 선택하면 된다.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동의'란에 체크도 해야 한다.

이날 CGNTV 임직원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로 찾아간다. 서빙고온누리교회 1

부와 2부, 양재온누리교회 3부와 4부 예배에서는 CGNTV 임직원들이 특순을 한다. 또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서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갯분 포토 이벤트'가 열린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갯분 스티커를 선물한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그동안 전적으로 CGNTV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함께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CGNTV는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디어 선교의 새지평을 열고 있다. 근래에는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을 론칭해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보급과 교회 양육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에는 성경 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을 선보이며 한국 교회에 말씀 암송의 바람을 일으켰다.

후원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11월 6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
온누리교회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봉사 ... 홈페이지 신청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종식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같은 기간과 시간에 기도하는 평화적인 시위다. 기도 봉사자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자별 기도문을 낭독하며 평화적으로 침묵기도로 시위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에 이어 세 번째다.

온누리교회는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담당한다.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요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홈페이지(http://40daysforlife.or.kr)나 전화(02-703-462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31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2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11월 1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목회행정실

사회선교부에서 '2022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과 뜻밖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서둘러 2022 엔젤트리를 접수하면 된다. 11월 13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목회행정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 가족 등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서 그 이웃의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면 된다.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가격이 5만 원 이하(꽃, 음식 등 금지)여야 한다. 또 정확한 배송을 위해서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

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022년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19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엔젤트리는 연말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선물을 전달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한편 '2022 사라브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 준비가 한창이다. 10월 24일부터(목) 본격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02-3214-3434

/ 김영선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창 11:10)

성경의 족보들은 한 시대가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조상수인들(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과 6장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과거 세대에 닥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자손들이 족속과 언어와 지역, 그리고 나라에 따라 분리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10장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과 그로 인해 언어가 달라진 인류가 흩어지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셈의 족보를 보면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의 조상수인들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수명이 감소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셈은 600세로 노아에 비해 300년 넘게 수명이 줄었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아르박삿의 3대손 벨렉은 239세로 급격히 수명이 감소했다. 수명 감소는 조상수인들의 건강한 유전자가 거대한 환경 변화로 조

금씩 손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구물리학자 바움가드너는 대홍수 격변을 설명하는 정교한 ‘격변적 판구조론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모델은 현재 지구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전 지구적인 거대한 퇴적암층, 수많은 화석과 초화산의 활동, 그로 인한 방사선 노출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초화산 활동이란 인도 대륙 전체를 덮다시피 하는 용암대지를 만들 정도로 거대한 화산활동을 말하고, 과거 이러한 활동이 많았다는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 전 지구적인 퇴적암 지층구조는 수많은 거대한 쓰나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판이 빠르게 이동한 대격변 모델로 잘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의 방사선 물질이 지표로 많이 노출됨에 따라 셈은 아버지 노아와 달리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영향이 아들인 아르박삿까지 이르러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을 것이다.

벨렉 시대 수명이 또다시 급격히 감소한 것은 “세상이 나뉘었다”(창 10:25)는 기록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대홍수 이후 기후변동으

로 인해 거대한 빙하기가 초래되었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륙들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벨렉 시대는 그 전과 달리 기후가 달라지고, 빙하기로 인해 충분한 양식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환경 변화로 급격한 수명 감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셈의 후손들의 급격한 수명 감소는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까지 말소시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우리아를 죽이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 다윗의 집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었다(삼하 12:9-14). 인류의 범죄로 인한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크게 손상시켰고, 셈의 후손들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바벨탑 사건을 비롯한 인간들의 갈라짐과 죄악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셈의 족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셈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 셈의 족

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된다. 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대부분 그 시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위치를 지킨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노아가 태어났고, 아브람이 태어났으며,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즉,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그 자리를 지켜서 영적 계보를 잇는 역할, 즉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연단을 통과한 다음 성취되는 꿈

10월 24일~30일
창세기 39:1~41:45



목상포인트 1: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하다. 그는 형들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애굽(이집트)으로 팔려 간다. 요셉은 종의 신분임에도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요셉의 고난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나게 한다.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묵상하자.

▶애굽에 팔려 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외모도 준수하고 일도 잘하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한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라며 단호히 거절한다. 집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며 강하게 그를 유혹한다.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둔 채 도망 나오자, 모멸감을 느낀 그녀는 옷을 증거물로 내세워 남편에게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한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

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를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

목상포인트 2: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꿈을 명쾌히 해석한다. 감옥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임을 받아 죄수들에 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징계를 받고 감옥에 들어온다. 두 사람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다. 요셉은 그들의 근심 빛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준다. 3일 뒤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의 술 맡은 자는 복직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된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자에게 자기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복직한 후 그는 요셉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그날을 잊지 않으신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은 통치자의 꿈을 통해 장래 일을 보이기도 하신다. 바로의 꿈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에 요셉이 바로 앞

에 선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 요셉의 자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자.

▶바로가 꿈을 꾸다. 살진 일곱 마리 소를 흉하고 파리한 소가 먹는 꿈과 충실한 일곱 이삭을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키는 꿈이다. 애굽 사람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의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한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할 것과 그에 대비한 경제 정책까지 조언한다. 바로는 7년 흉년을 극복할 책임자가 요셉임을 확인한다. 죄수 신분이던 요셉이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가정 총무 경험과 감옥에서의 관리 경험은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가정이 형통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로 인해 나와 관계된 이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을 쓰신다. 요셉처럼 성적 유혹의 자리, 하나님께 죄짓는 자리를 멀리하자. ▶요셉에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와 감옥에서의 관리 경험은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고 매사에 충실하게 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공민우 형제와 가정을 위해

발달장애가 있는 스물세 살 공민우 형제의 어머니가 보낸 기도제목을 받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편지를 보냅니다.

공민우 형제는 어릴 적부터 발달장애가 있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부모가 밥을 먹이고, 옷을 먹이고, 씻기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비염약 작은 한 알이라도 먹으면 흥분, 폭발, 온몸을 떠는 발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염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가려움증, 눈 충혈, 코막힘이 생기는 상황이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공민우 형제가 발작을 일으키면 부모님이 양쪽에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붙잡고 있어야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스물세 살 청년이 부모님보다 힘이 세서 위험한 상황도 생깁니다. 부모님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민우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약 부작용이 사라지거나 비염 등 알레르기가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민우 형제를 돌보는 부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공민우 형제를 만져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하심을 말씀합니다. 이를 종교개혁자들은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중요한 교회의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가톨릭은 이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 교리를 강조하고, 이 진리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면 로마 가톨릭의 체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구절마다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2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5절), ‘그리스도의 영’ (9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11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13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14절), ‘양자의 영’ (15절),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이다’ (16절), ‘성령의 첫 열매’ (23절)라고 했습니다. 구절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많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죄, 질병, 마음의 아픔, 낙심 등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만으로는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감정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 의지에 묶여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자신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끌었고 출애굽을 이

도우시는 성령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26~30

“구원의 확실함을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끝났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볼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에게 “그만해라. 족하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조차 자신이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 됨의 놀라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성령님은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변호하시고, 모든 고발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또 한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대신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우십니다. 두 분 모두 완벽한 행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심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지 못하면,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가만히

있는 곤비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까지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를 읽으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히 탄식하시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완전히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 가운데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확신과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영원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확신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상에 계실 때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함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기 쉽습니다.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앞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라는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원문은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나오고, 학자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번역은 영어의 AV번역을 직역한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IV번역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거야”라고 할 수 있는 맥락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위안을 받으셨던 분은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선이 구원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탐욕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된다면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라보는 우리를 위한 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끊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염증을 느끼도록, 세상이 싫어지도록 상처받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틀 박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다섯 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택했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때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때로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CGNTV 정기후원약정_해외 지사의 선교 열전

한계 없는 CGNTV 해외 지사의 도전

CGNTV 6개 해외 지사의 역할 그리고 사명



미디어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CGNTV 해외 지사들(왼쪽부터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CGNTV는 세상에 둘도 없는 선교 방송이다. CGNTV의 선교 영성이 해외 지사를 타고 열방으로 흩어진다. CGNTV는 미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프랑스에 6개 해외 지사를 두고 한계 없는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 배포, 현지 콘텐츠 제작,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선교지에서 미디어 선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CGNTV 6개 해외 지사 중에서 일본(박두진 지사장), 인도네시아(윤영준 지사장), 태국(고요한 지사장) 담당자들에게 CGNTV 해외 지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들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일본 CGNTV는 두 번째 해외 지사로, 2006년 10월 30일 개국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 크리스천 2천여 명이 참석한 개국 행사를 열고, CGNTV가 일본 복음화의 선봉에 설 것을 선포했다. 그 엄청난 포부와 달리 기독교에 보수적인 일본에 적응하는 데 꽤 큰 어려움을 겪었다. CGNTV의 첫 해외 지사인 미주 CGNTV는 한인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공급했기 때문에 CGNTV는 현지인을 위한 콘텐츠 공급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CGNTV의 경험이 또 다른 CGNTV 해외 지사에게 약이 되었다. 성공적인 CGNTV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데 정말 큰 보탬이 됐다.

일본 CGNTV도 초창기에는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인 CGNTV 정기후원자가 계속 늘 정도로 현지화에 성공했다. 2019년 일본인 CGNTV 정기후원자 100명을 달성했고, 지난 9월에는 420명을 돌파했다. 일본에서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박두진 지사장이 이렇게 고백했다.

“일본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실례를 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일본 문화에서 후원은 정말 어색합니다. 그런 일본에서 일본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CGNTV 정기후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계가 CGNTV의 진심을 알고부터 속속 후원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크리스천을 위한 콘텐츠가 빈약한 일본 교계에 CGNTV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한 것도 일본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됐다.

“일본에는 기독교인 자체가 워낙 적어서 찬양을 비롯한 기독교문화가 정말 적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누릴 기독 콘텐츠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CGNTV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복음 콘텐츠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상당히 많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CGNTV의 콘텐츠로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 채널 인도네시아 CGNTV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MZ세대(1980~2000년 초 출생)일 정도로 젊은 국가다. 그 덕분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세다.

인도네시아 CGNTV는 미디어 선교의 경험을 살려 현지 교회와 신학교, 여러 단체와 협업하며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는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윤영준 지사장이 인도네시아 CGNTV의 역할과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CGNTV 본사의 영상 중에서 현지에 잘 맞는 콘텐츠들을 자막과 더빙 등의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Life 채널’, ‘Papua채널’, ‘JayaTV’ 등 위성과 지역 케이블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제작된 양질의 기독 모바일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CGNTV는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제작해서 ‘성경읽기 운동’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나

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TV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스태프들이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에 대한 깊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현지인 스태프들이 모두 선교현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CGNTV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에 전달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태국을 넘어 아세안까지! 태국 CGNTV의 원대한 꿈

태국 CGNTV는 미디어 선교사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다. 태국 CGNTV는 지난 해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기독교에 흥미가 있는 이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태국 CGNTV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제공하는 ‘리뷰바이블’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리뷰바이블’은 ‘왜 성경을 리뷰하는 콘텐츠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고요한 지사장이 ‘리뷰바이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리뷰바이블은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을 리뷰하는 콘텐츠는 많은데, 왜 성경을 리뷰하는 콘텐츠는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태국 CGNTV의 가장 인기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태국 CGNTV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현지인이 지난해만 114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325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태국 CGNTV는 결신자들을 각 지역 교회에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태국 CGNTV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다. 지금은 태국인과 태국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이 아세안 지역 기독교 콘텐츠의 허브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태국 CGNTV가 정말 큰 꿈을 꾸고 있고, 그 일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CGNTV를 시청하고, 후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태국 교계에서는 2028년 태국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LOVE THAILAND 1, 1.1’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만 교회, 1백만 성도, 1만 리더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태국 CGNTV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태국 교회의 성장과 더 나아가 아세안 지역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정기후원 약정으로 CGNTV 해외 지사의 도전에 동참해주시고요.”

CGNTV 해외지사 연혁



- 2005년 8월 미주 CGNTV 개국
- 2006년 10월 일본 CGNTV 개국
- 2008년 6월 대만 CGNTV 개국
- 2010년 11월 태국 CGNTV 방콕 제작센터 오픈
-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CGNTV 개국
- 2015년 8월 홍콩 CGN WORLD 설립
- 2022년 11월 프랑스 CGNTV 개소 예정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갈등과 다툼, 분열이 만연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혐오의 시대'라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혐오(嫌惡)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다른 세대와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된다. 그 잣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혐오 대상이다.

혐오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이 삭막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 이 지면에서는 '장애 인혐오', '아동·청소년혐오', '노인혐오', '젠더혐오', '자기혐오'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크리스천들은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본다. 마지막 주제는 '자기혐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I don't wanna be you(나는 네가 되고 싶지 않아).”

미국 가수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I don't wanna be you anymore'의 가사 일부다. 이 노래에서 말하는 '너'는 '자기 자신'이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 빌리 아일리시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I don't wanna be you anymore”라고 말한다.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나'라는 말만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 또 있을까? 자기 부정은 '자기혐오'의 한 방식이다.

자기혐오(自己嫌惡, self-loathing)란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증오하고, 자신에 대한 분노감 내지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자기혐오를 자존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자기혐오에 빠진 사람을 '자존감이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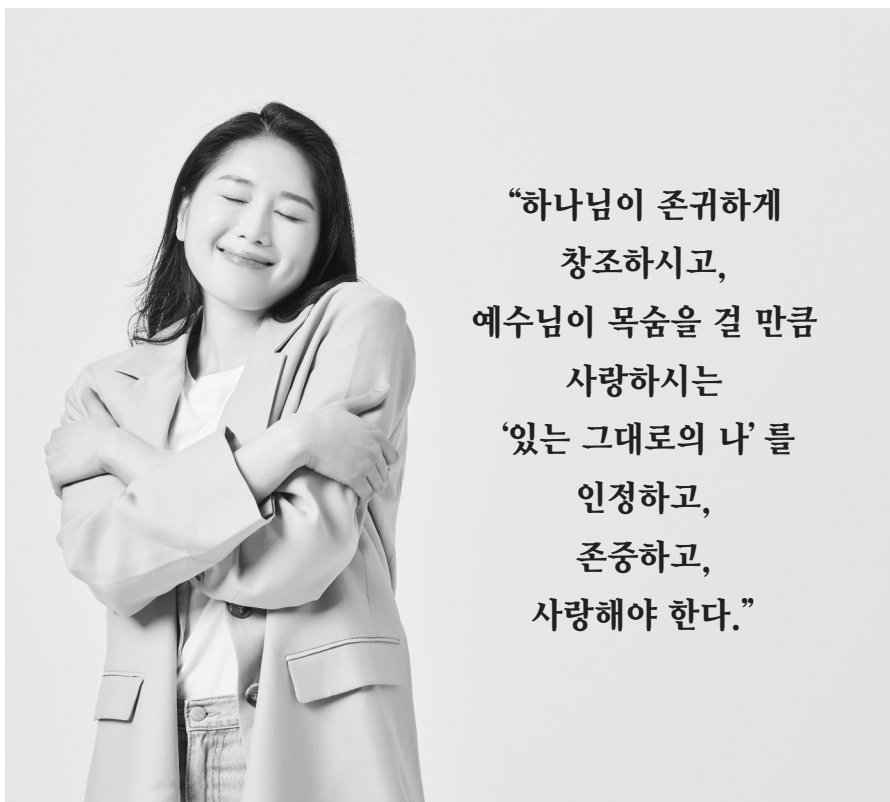
자존감(자아존중감, 自我尊重感, self-esteem)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의미한다. 자존감 척도에 따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자기혐오, 자책과 비교에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자기혐오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자꾸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것일까? 자기혐오는 대부분 자책과 비교에서 시작된다.

A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불안하다. 성경 말씀을 자신을 비취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 때, 직장 동료를 험담할 때 등 말씀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양심의 가책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는 자신’에 너무 몰두해서 자책을 시작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A자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이 심해졌다. 급기야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렸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계속 죄를 짓는 저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실망스럽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주일성수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는 지체들을 사랑하시지 왜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이제는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겁이 납니다.”

자기혐오는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

지만, 외적인 콤플렉스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외적인 부분이야말로 남들과 비교하기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부쩍 늘어 고민인 B자매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남들은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는 자신이 한심하다.

“대학생 때보다 몸무게가 30kg이나 쯤어요. 살이 조금씩 찌 때마다 다이어트를 다짐했는데 매번 실패해요. 주위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다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의지가 부족한 탓이겠죠? 몇 년째 말만 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B자매는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서는 게 겁이 나서 피하기 일쑤다.

“살이 찌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게 무서워요. 제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모두 제 욕을 할 것만 같거든요. 사람들이 제게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자리에 나서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제게 좋은 말을 해줘도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자기혐오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밟고 싶어질 때가 있다.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한 날,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외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나아지면 괜찮지만, 그 상태가 몇 주, 몇 달, 몇 년 지속하기도 한다. 그 기간에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의 단점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만 느껴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결국 자기혐오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자꾸 평가 대상이자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할수록 자기혐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기혐오의 늪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 1:27a).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성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살이 찼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 만큼 내 존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노래(唱)하면 아내도 따라 한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화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여기, 선한 생각도 부창부수인 부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문충실 장로와 이정희 권사 부부(동작공동체)다. 문충실 장로와 이정희 권사 부부는 선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다. 남편 문충실 장로는 ‘횡단보도 그늘막’의 최초 제안자이고, 이정희 권사는 기후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기 훨씬 이전부터 환경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과 환경 사랑에 앞장서는 그들을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한 생각도 ‘부창부수’ (夫唱婦隨)

문충실 장로, 이정희 권사 부부의 사람과 환경 사랑



선한 생각도 부창부수 문충실 장로와 이정희 권사 부부, 우측 하단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앞 횡단보도 그늘막.

착한 그늘막. 횡단보도 그늘막의 또 다른 이름이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통행이 많은 도심 횡단보도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운 여름 없어서는 안 될 도로시설물이다. 더울 때는 햇빛을 피하게 하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충실 장로가 바로 횡단보도 그늘막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이다. 그 획기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2013년이였다. 당시 동작구청장으로 근무하던 문충실 장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 소망이 결실을 맺어 횡단보도 그늘막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동작구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노인들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땀별을 가릴 방법이 없을까, 비를 피할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구청장으로서 사랑하는 구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책정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동사무소에 행사에서 사용되는 소형텐트

가 있는데, 행사 때만 쓰는 거라 평소에는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다 횡단보도 그늘막으로 쓰면 비용도 안 들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문충실 장로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졌다. 동작구에 있는 횡단보도 약 50여 곳에 소형텐트를 설치했다. 당시에는 ‘폭염 방지 그늘막’이라는 이름으로 텐트를 세웠는데 동작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형 밀착행정”이라는 호평이 줄을 이었다. 동작구 주민들의 호응이 다른 구에도 전해졌다. 문충실 장로가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동작구 주민들이 좋아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선한 영향력이 동작구와 이웃한 서초구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영등포구, 구로구, 강남구 등에서도 횡단보도에 텐트를 설치하더라고요.”

순식간에 횡단보도 그늘막이 서울시 전제로 번졌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횡단보도 그늘막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순수하게 구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횡단보도 그늘막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낸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 전국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황송할 따름입니다. 제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정희 권사, ‘콩자루 전도사’가 되다

이정희 권사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정희 권사는 ㈜에코나라(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기기 개발, 설치하는 친환경 기업) 대표다. 에코나라의 ‘음식물 자원화 감량기(이하 감량기)’는 남은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없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하는 친환경 기기다. 감량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고속 분해하고, 남은 부산물(유기물)을 비료로 자원화시켜 재활용한다. 현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정희 권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앞장선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그녀의 환경 사랑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여선교회에서 ‘주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가정에서 주부가 합성세제를 많이 쓰면 오수(汚水)가 한강으로 흘러가고,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스스로 물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시절 우연히 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정희 권사에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이후 이 권사는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그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찌개 국물 한 컵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남은 찌개 국물을 하수구에 함부로 버리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마다 먹을 만큼만 하고, 부득이하게 국물이 남으면 싱크대 하수구가 아니라 정화조로 흘려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아끼고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합성세제 쓰는 것도 최소화했지요.”

이정희 권사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그녀는 콩자루를 애용했다.

“여자들이 생리통으로 고생하거나 몸살 등으로 힘들어할 때 면주머니에 콩을 넣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배에 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보온효과가 탁월하면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콩자루는 문충실 장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빛을 발했다.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하필 IMF 때였습니다. 나랏돈으로 지내는데 한 푼이 아깝더라고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서 난방(히터) 대신 온 가족이 콩자루를 데워서 끌어안고 잤습니다. 우리 가족이 콩자루를 사용해서 난방한다는 이야기가 교포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콩자루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저더러 ‘콩자루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나랏돈 1달러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절약하고 아끼는 운동으로 발전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정희 권사의 환경 사랑이 사업으로 성장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방법을 모색했고, 그렇게 탄생한 기계가 에코나라 음식물 자원화 감량기다. 이정희 권사의 환경 사랑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15년 환경부에서 개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올해 6월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탄가스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아까마마한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로 자원화시키고,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놓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보십시오. ‘탄소중립 생활 실천서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www.kcen.kr)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충실 장로와 이정희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인간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과 자연 환경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회복시켜야 합니다.”

III 강영재 장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8장과 41장 사건이 기록된 진짜 이유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나는 창세기 말씀을 QT 할 때마다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그 자녀들의 성적 타락 이야기와 41장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있었던 7년 흉년과 7년 흉년 이야기다.

창세기 38장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왜 성경에 유다 자녀의 체외 사정과 유다의 성매수 같은 성적 타락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나 하는 의문이었다. 또 창세기 41장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셔서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젖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흉년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곡식 구하러 가야 했던 7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했다. 출이집트기 첫 부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박해를 받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로 수년 동안 고생하게 하고, 모세를 시켜 끌어내지 말고 처음부터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근래에 창세기를 몇 번 정독 하면서 QT 할 때 보지 못한 내용이 파악되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정독이란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분량을 읽고 넘어가는 통독과는 다르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어 두셨을까?’ 고민하고, 내용 이해를 위해 인물, 지명, 사건 등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며 읽는 방식이다. 특히 창세기처럼 구절 수가 많은 장을 여러 토막 내어 QT 하면 문맥상의 의미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더욱 정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창세기 38장을 QT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적 타락을 경고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어 욕보이기 위함인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정독하면서 다시 읽어 봤더니 문맥상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왜 요셉 일가를 이집트 고센 땅에 보내 격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줬다.

유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번성

가족을 떠나 가나안에 살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가나안 사람을 며느리로 삼았다. 연이어 나오는 유다의 죽은 장남 에르의 대 잇기를 거부해 형수 다말과 동

침할 때 체외사정한 차남 오난의 죽음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해 자녀를 얻는 등의 성적인 타락상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오염된 유다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리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창 38:1-2).

“유다는 만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창 38:6).

유다의 성적 타락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나 보다. 가나안 땅에 그냥 두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핵심인물인 유다와 그 자손이 그곳에 동화되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단기간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없었을 것이다.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창 46:33-34).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요셉의 두 번 꿈 이야기(창 37:5-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에 시작되고 진행된 약속의 성취이다.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꾸는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성경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창 21:17) 불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7년씩 흉년과 흉년을 주심으로 그 지역 전체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주셨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젊은 히브리 종인 요셉을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기적이 일어났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자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에서 환대받게 하시고, 약 70여 명의 야곱의 자식들이 430년 동안(출 12:40) 장정만 60만여 명(출 12:37)이 되도록 하셨다. 여자, 어린이, 노인을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야곱) 일가가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고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의 풍요로움도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양 치는 사람을 싫어해 가까이하지 않는 점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유다처럼 이집트에 동화될 가능성이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 네게 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창 37:5-11).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의 위기관리를 탁월하게 하고 인정을 받았다. 반면 유다는 점점 가나

안에 동화되어 내버려 두면 망가질 것을 아시고 7년 흉년 때문에 이집트(히소스 족 통치 시기)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하셨다. 이후 고센 땅에 고립시켜 번성하게 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고센에서 부족함 없이 번성하다가 말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집트 족)이 히소스족으로부터 통치권을 회복하자 갑작스레 고난을 만난다. 이스라엘의 인구수에 놀란 왕이 인구증가를 멈추기 위해 노예로 혹사하고, 갓 태어난 사내아기를 죽이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즈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모리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 가나안 거주민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 이 모든 사건을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창 15:16, 개역개정)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창 15:18-21, 개역개정).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이해하기 어렵던 창세기 38장과 41장은 결국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 창세기 41장의 7년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었고, 창세기 38장은 유다를 가나안에서 빼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출이집트기에 기록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박해와 출이집트 사건도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시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번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과 상황을 활용하고 연출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한 자 한 자 곱씹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데 믿음으로 따라가 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풀이 되는 그 순간 큰 은혜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라떼는 말이야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

“배우자의 조건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내가 만날 배우자의 조건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알려주세요, 멘토님!”

참 어려운 고민이다. 나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말하고 싶다.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혼 아니면 죽음으로.’ 결혼은 ‘전혀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 같은 배를 타고 아름다운 항구를 출발해 미지의 항해 과정을 거친 다음 미지의 항구에서 서로 헤어지는 삶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는 과정이다. 두 사람이 만나서 시작한다는 점, 두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점, 그 두 지점 사이에 반드시 미지의 항해를 거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평등한 시간이다. 미지의 항해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 러브스토리 내용이 커플마다 다를 뿐이다.

결혼은 아름다운 항구를 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그 여정과 도달할 항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에 불안한 일이

다. 배우자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이미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하려는 커플들이 결혼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질문에는 ‘배우자 조건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고 본다. 많은 청년이 생각하는 조건이란 이제 출발하는 아름다운 항구의 일부분 혹은 미지의 항해를 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들이다. 그 조건들이 없다면 아름다운 항구가 아닐 수도, 항후의 항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그 조건들이 충분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극복할 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조건을 항해의 필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조건이 좋거나 많으면 항해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산 필자의 눈에는 그러한 조건들은 모두 갑판에 실어놓은 수하물에 불과하다. 밧줄에 묶여있지도 않은 수하물, 파도치고 풍랑이 일 때마다 마구 흔들리고 이리저리 쏠리며 물려다닐 수 하물일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수하물을 싣고 항구를 떠나고, 곳곳에서 좋은 물건들

을 실었다고 하더라도 커플이 견고한 사랑이라는 밧줄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겹줄로 고정되지 않는다면 빈 배나 마찬가지다.

나와 결혼할 배우자는 1천 년 전에 짜지어진 필연적인 인물도,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웃 나라 왕자나 공주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미지의 항해를 함께 하다가 그 여행의 끝에서 결국 헤어질 인물이다. 서로 정해진 시점에 천국에 도달할 여행 과정의 동반자이자 친구이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조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긴 결혼 생활을 두고 볼 때 결혼 당시의 상황은 그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의 결말은 시작 시점의 불안이나 미지의 항해를 위해 준비한 조건과 상관없이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낼 것인가의 의지와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실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기를 바란다.

다.

첫째, 평생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죽음에 갈아놓을 때까지 아니 갈라놓은 후라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두 사람을 고정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셋째,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조건을 보고 고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점, 하나님의 삼겹줄과 혼인 당사자의 의지적 사랑이 결혼의 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삶의 긴 여정에서 믿음의 동반자이자 친구로서의 배우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양웅 장로
(요셉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마음과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누군가 “날씨가 너무 춥네”,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답이 무엇일까? 또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네”라고 말했을 때 적절한 대답은 무엇일까? 조금만 고민 해본다면 이 말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나 정답에 가까운 반응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들어도 적절하지 않은 대답과 반응을 하는 경우를 어렵게 없게 만날 수 있다. 종종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대답과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 오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라고 말한다면 가장 무난한 대답은 “힘들었겠네”,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수준의 말일 것이다. 하지만 고민 없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라고 했지!” 식의 대답이나 반응이다. 상대의 말에 단계가 낮은 사실적인 반응만 하거나 책망 섞인 대답을 하는 것은 부부의 긍정적인 대화이기보다 단절을 경험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의미를 경험하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날씨가 춥네”, “겨울이잖아”라는 대화는 정보와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의 대화이다. 일반적인 관계의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수준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깊

은 관계가 아닌 사람과 비교적 무난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수준이다.

부부는 정보와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대화에서 더 깊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와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향한 비난 섞인 말보다는 어찌면 더 나눌 수 있다. “날씨가 너무 춥네”, “오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 “왜 사서 고생을 해”라는 비난성의 대꾸는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관계의 분열을 일으킨다. 부부의 대화는 존중과 존중, 인정과 인정을 주고받는 성격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에 적절한 대답은 공감과 헤아림이 있는 대꾸다. 정보와 사실 수준에서만 되돌려주는 말이나 핀잔 섞인 말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 많이 춥네”, “많이 힘들었겠네”라는 수준의 반응만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네”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했다면, 그 상황을 너그러이 헤아릴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정보 전달 수준에서 반응하든지 비난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최소한 부부가 가져야 할 대화 형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밤

게까지 업무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쉬엄쉬엄 일하라고 얼마나 자주 말을 했어”라고 반응한다면 마음에 서운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들게 된다. 나를 한 없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실망감이 들게 된다. 어찌면 마음의 문을 더 열어 잠그게 될 수 있다.

누구나 배우자가 자신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부부라면 누구보다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다. 숨길 수 없는 가까운 부부 관계의 거리에서 때로 격려보다 책망과 비난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다. “내가 지켜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 “내 말이 맞지”라는 대답을 던져 주기도 한다. 정보나 사실에 기반한 말을 돌려주는 것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 빈도를 높여도 좋겠지만, 정보나 사실 기반 위주의 대화를 주고받는 부부관계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부부는 정보나 사실에 근거한 말을 주고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대화의 수준은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대화, 의미와 의미가 만나는 수준의 대화다. 무엇보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화 내용과 수준

이면 부부가 더 깊은 하나 됨과 연결감을 경험한다. 부부의 하나 됨과 연결감은 “그래도 당신은 내편이네”, “그래도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주네”라고 하면서 마음의 시원함과 행복감, 때로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한다. “오늘 너무 춥네”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그래, 추운데 얼마나 힘들었어?”,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 정도의 대답을 해줘야 한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그래 요즘 너무 애쓰면서 일하는 당신을 보니 안쓰럽네” 수준의 반응을 돌려주면 좋겠다.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 사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음과 마음을 읽어주는 수준의 대화’를 경험해야 한다. 나에게 배우자의 말을 핀잔으로 돌려주는 말의 습관이 있다면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의 습관에서 자기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는 어떻게 배우자의 말에 대꾸하는지?’, ‘나는 배우자의 말에 자주 핀잔과 비꼬는 말투로 대하지는 않는지?’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잠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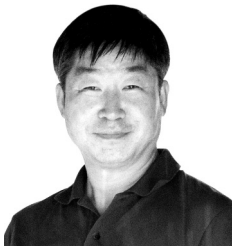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철원제일감리교회’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는 재건되지 않는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
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가을이 깊어가니 겨울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아침마다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때이다. 겨울이면 일기예보에서 자주 듣는 곳이 ‘철원’이다. 철원은 겨울의 대명사처럼 추운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을걷이가 가장 먼저 끝나는 고장이기도 하다. 철원은 김제와 함께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철원 들에서 생산되는 오대미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철원 농산물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혹독한 추위 못지않게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철원은 순우리말로 ‘쇠둘레’라 한다. 예부터 땅속에 철이 많아 그것이 여름이면 뜨거워져 더 덥다고 말해왔다. 철원은 현무암 용암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북한 평강고원 오리산(452m)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려 넓고 긴 용암대지를 만들었다. 그 용암대지 위에 화산재가 쌓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 흐르던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해 좁고 긴 협곡을 만들었는데 한탄강이다.

궁에는 이곳을 도읍으로 삼고 후고구려를 건국해 천하통일을 꿈꾸었다. 이 궁에도성이 DMZ(비무장지대) 안 남과 북에 걸쳐 있다. 광활한 농경지가 있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철원 인구는 3만 명을 헤아렸다. 철원평야 가운데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경원선(서울-원산)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고, 금강산 가는 열차를 갈아탈 수도 있었다.

해방과 함께 철원은 38도선 이북이어서 북한이 되었다. 철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북한은 이곳에 노동당사를 짓고 주민들을 통제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들은 반동

으로 몰아 처형했다. 빼대만 남은 철원노동당사는 공산당 치하에서 겪었을 수많은 이의 아픔을 품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넓디넓은 평야는 양보할 수 없는 땅이 되어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 헤아릴 수 없는 폭격이 있었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전쟁통에 철원은 잿더미가 되었다. 3만 명이 살았던 도시는 몇몇 콘크리트 잔해로만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겪었을 수난이 얼마나 극심했겠는가?

노동당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철원제일감리교회터가 있다. 이 교회는 190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웰번에 의해 창립되었다. 1907년 선교지역 조정에 의해 강원도가 감리교 선교지가 되면서 감리교회로 바뀌었다. 당시 교회는 선교, 교육, 사회봉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1930년 성도 600명에 이르는 부흥을 보게 되었다. 이에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고, 1937년 확장 건축했다. 건평 655㎡(약 2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큰 교회였다. 교회문은 아치형으로 우아함을 갖추었고, 뽕족지붕은 조지아 고딕양식을 사용했다. 1층에는 1개의 소예배실과 분반 공부할 수 있는 공부실이 여러 개 있었다. 2층은 대예배실이었다.

일제강점기 말 우리 민족이 혹독한 고통에 내몰릴 때,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 불의에 저항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간교한 신사참배에 맞섰다. 35세 나이로 담임목사로 부임한 강종근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일제는 강종근 목사를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고 고문을 자행했다. 구타와 고문으로 몸이 허약해진 강종근 목사는 1943년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순교하고 말았다. “나는 주를 따라간다. 마음이 기쁘다”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성도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켰다.

해방은 되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민족 분단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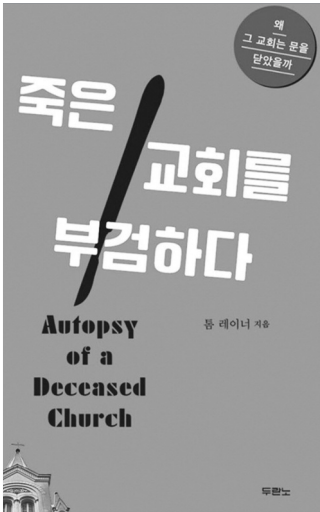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철원제일감리교회 터.

공산 치하에서 더 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노동당사에 맞서 반공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전쟁으로 교회는 폐쇄되었고, 인민군 병영으로 사용되던 중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콘크리트 덩어리 흔적만 남은 철원제일감리교회는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잔해로 남은 교회 옆에 새로 지은 교회가 있다. 2013년에 준공하고 봉헌한 철원제일감리교회이다. 부서진 교회 잔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외부의 탄압과 폭력으로 무너진 교회는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는 재건되지 않는다. 교회 역사가 그랬다. 탄압이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국교로 대접받았을 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시대 교회는 스스로 무너졌다. 솔로몬의 영화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곁을 떠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철원제일감리교회는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란노 신간

교회가 죽는 이유 그리고 해법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 저 | 두란노 | 11,000원

러싼 갈등 등도 교회가 죽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책은 비단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다. 저자의 경고와 해법은 나, 가족, 회사, 사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저자 톰 레이너는 미국에서만 10만 개의 교회가 죽어가는 징후를 보인다고 경고한다. 그 어떤 목회자와 성도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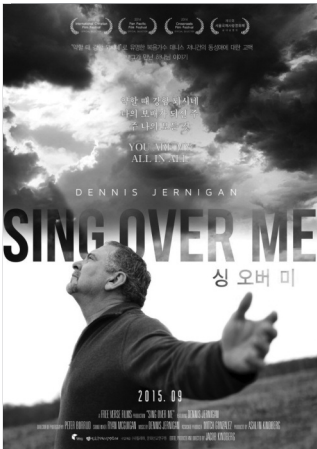
교회 연구가이자 교회 컨설턴트 톰 레이너는 죽은 교회 14개를 부검해서 교회가 죽는 이유와 그 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죽은 교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거창한 비전 가운데 탄생한 교회가 더 이상의 비전 없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교회 부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실은 죽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교회들은 절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짊어지고 있다. 내부나 외부 요인들이 과거를 바꾸려 할 때마다 그 교회들은 고집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변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교회의 지역사회 외면, 탐욕, 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도 교회가 죽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책은 비단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다. 저자의 경고와 해법은 나, 가족, 회사, 사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꺼내 보는 영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싱 오버 미’ (Sing over me)
제임스 킨더버그 감독 | 2015년

동성애, 낙태 문제가 이슈인 요즘 다시 꺼내 보면 좋을 영화가 있어 소개한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를 작사·작곡한 찬양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의 동성애 고백과 간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싱 오버 미’ (Sing over me)다.

저니건은 1959년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과 동성애 성향으로 늘 괴로워했다. 어느 날 저니건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동성애를 고백한다.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는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니건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 놓아야 했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저니건은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탄생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싱 오버 미’는 감당하지 못할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싱 오버 미’는 네이버 시리즈온, 티빙, 웨비브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 전영한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홍정길 목사, 김동일 보령시장(앞줄 맨 오른쪽) 등 내외빈들이 보령 예수공원 부지 기증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 보령에 ‘예수공원’ 생긴다!

지난 10월 19일 ‘보령 예수공원 부지 기증식’
전영한 장로와 가족, 이재훈 목사 등 50여 명 참석

충남 보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테마로 한 공원이 생긴다. 전영한 장로(하남주식회사 대표)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번지 외 51필지(297,524㎡)를 온누리교회에 기증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테마로 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10월 19일(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3-20에서 ‘보령 예수공원 부지 기증식’이 있었다. 이

재훈 담임목사, 전영한 대표와 가족, 당회운영위원,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김동일 보령시장 및 지역 유지, 선교재단 및 온누리교회 교역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전영한 장로님과 그 뜻에 함께한 가족들께 감사하다”면서 “보령 예수공원 조성이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데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영한 대표는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예수님을 테마로 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흔쾌히 승낙해준 온누리교회와 보령시에 감사하다”면서 “많은 관광객이 보령 예수공원을 보러 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사 안수

“큰 느티나무 같은 목회자 되겠습니다”



김한국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인생의 한 번뿐인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제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모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텐데 목사님이 되시거든 큰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 새도 와서 동지를 틀고, 저 새도 와서 동지를 틀고, 모든 새에게 쉴 그늘과 동지를 틀 터전이 되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인생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큰 느티나무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충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듣고 모이고 행동할 기회’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

2024년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 10월 22일(토)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마이클 오, 데이빗베넷, 라스뉴만 등 국내외 로잔대회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제4차 로잔대회 의장은 이재훈 담임목사와 마이클 오 대표가 공동으

로 맡는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준비위원장,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총무,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실행총무로 섬긴다.

로잔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열리는 대회다.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 9월 ‘함께 듣고 모이고 행동할 기회’를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3-1호 3층)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 팔, 캄보디아 이주민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605-2510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그 내용을 보도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의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2차 참가자 교육

10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비전홀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2차 참가자 교육이 10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차 참가자 교육에서는 일본 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MySOS’ 앱 사용법, 단체 티셔츠 배부, 봉사 매뉴얼 및 주의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Love Sonata

미야자키 기 · 도 · 제 · 목

- 10월 24일(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도록
- 10월 25일(화)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 10월 26일(수) 교회 세미나 강의를 통해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10월 27일(목) 가스펠나이트에 참여하는 일본 교회에 참 연합의 기쁨이 있도록
- 10월 28일(금) 리더십 포럼을 통하여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10월 29일(토)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도록
- 10월 30일(주일) 출연진과 봉사자들, 스태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10월 29일, 청소년반 11월 12일 개강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청소년반은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반에서는 내년 1월 5일부터 11월까지 해외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

다. 참가신청은 10월 28일(1차)까지 아이스쿨 및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 최종 마감은 11월 4일이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회비는 부모반 3만 원, 청소년반 9만 원(인 15만 원)이다.

문의: 02-793-9686

010-4548-1522

온누리세계관학교 세미나

11월 1~29일 매주 화 오후 8시

온누리세계관학교(OWA: Onnuri Worldview Academy)에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1월 1일 ‘세계관이란’, 8일 ‘세계관 비교’, 15일 ‘세계관과 소비주의’, 22일 ‘세계관과 과학주의’, 29일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주제로 조준

목 목사(이수공동체), 류현모 교수(서울대), 정운오 장로(서울대명예교수), 신무한 장로(연세대 교수), 최도성 장로(한동대 총장)가 강의한다. 온누리세계관학교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1학점 부여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2-3215-3637

창조과학탐사 참가자 모집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흔적이 남아 있는 지층을 탐사하면서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김제 7자 교회를 방

문한다. 수강신청은 10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창조과학탐사에서는 창조과학 탐사활동, 박물관 투어, 탐사활동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7636-630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1월 22일까지 아이스쿨 또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

(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 ‘다락방 1사역’ 참가자 간증



/ 김현정 성도(동작공동체)

나의 또 다른 보물

지난 9월 23일,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이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남대문희망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서울역과 동자동 일대 쪽방촌 주민 그리고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1다락방 1사역으로 품었던 이웃들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오랜만에 남대문희망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에 설렘이 가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난 3년여 방 안에만 있었다는 어느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 왔구나’ 싶었다. 그간의 답답함과 외로움, 죽음의 공포 등을 몰아낸 끝에 떠나는 여행이었다. 자유와 희망, 사랑이 넘치는 소풍이 되기를 기대했다.

드디어 가을 소풍 당일. 총 62명(남대문희망공동체 지체 26명 포함)이 Acts29비전빌리지에 도착했다. 먼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다. 목직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은은하고 편안한 빛이 우리를 감싸줬다. 하나님이 “그동안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성령의 빛 가운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모두 녹아내렸다. 곤지암 화담숲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숲도 구경했다.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걷는 지체를 살뜰히 챙기는 순장님을 비롯해서 동작공동체 리더십들이 남대문희망공동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살피고 챙겼다. 남대문희망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기분이 좋다고 감사하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다.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드리고 싶어서 사진사를 섭외하려고 했다. 나는 사진사로 ‘아버지를 초청하자’는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는 나의 오랜 전도대상자다. 이번 가을 소풍이 웬지 모르게 아버지를 향한 맞춤전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큰딸의 부탁에 흔쾌히 참여해주셨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해외 근무와 지방 출장으로 큰애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같이 나들이하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되었다. 또 참여하고 싶다.”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의 여정을 함께하는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들과 우리는 서로 어깨를 기대고 살아갈 가족으로 자리잡았다. 그분들은 나의 또 다른 보물이다.

■ 스타트리협동조합의 열매



/ 이경원 선교사(인도네시아공동체, 스타트리협동조합)

실바가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들 실바가 돌아왔다. 실바는 4년 동안 인도네시아어 예배에 나온 동티모르 형제다. 처음에는 4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안산에서 놀다가 예배를 마칠 때 어슬렁어슬렁 와서 뺨뺨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각생이었다.

처음에 나를 보고 자기 엄마를 닮았다며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였다. 얼굴은 까맣고 머리칼은 곱슬인 실바 엄마랑 내가 닮았다고 하기에 어지간히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실바 엄마의 사진을 봤더니 나랑 코가 닮았고, 어딘가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바는 내 아들이 되어 4년을 함께 보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근로자 계약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6개월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 실바가 “저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내 나름대로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실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가 추 선생님이 계시는 인도네시아 람퐁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딱 맞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실바를 고향으로 떠나 보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바

의 인도네시아행은 무산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실바가 다시 한국에 왔다. “엄마 저 성경도 가르쳐 주고 신학교도 보내주세요”라면서 의젓한 믿음의 청년이 되어 돌아왔다. 부쩍 성숙해진 실바를 보면 참 든든하고 대견하다. 하나님이 실바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 요즘 실바는 동티모르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다.

“엄마,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전도하지 말고요.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자기도 처음 인도네시아어 예배에 왔을 때 잘 몰랐지만, 말씀을 읽고 많이 변화되었다면서 일단 전도부터 하자고 한다. 그리고 동티모르인 6명을 데리고 왔다. 비가 쏟아지는 날 친구들은 비온다고 오지 않았는데, 실바는 그비를 뚫고 왔다. 실바의 믿음이 정말 좋아졌다. 또 안산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왔다. 이제 실바는 전도자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실바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한국어를 잘 배워서 신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간증



/ 김애니 자매(양재 열린새신자예배)

아주 귀하고 특별한 자리

2016년 어느 주일,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예배가 있다. 바로 양재온누리교회 특별한초대 열린새신자예배다. 눈물 콧물 다 쏟아 낸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주저 없이 새가족 등록을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대일제 자양육부터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한초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내가 가장 처음 섬긴 자리는 안내팀이었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초대에 응하시는 새가족들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내가 이 아름다운 예배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했다. 안내팀 외에도 새가족 교육도 섬겼다. 그때 누린 은혜는 더욱 특별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발걸음을 환영하고,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가 느낀 감동과 벅차오름을 표현할 길이 없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가족 교육 현장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정말 특별했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임을 통해서 함

께 교제하며 친목을 다지고, 함께 성장하는 그 시간이 내 믿음 생활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어차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교회 사람들과 얹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꼭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예배만 오가던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갈망을 알아주셨고, 꼭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셨다.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과 섬김의 자리에서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의 일원으로 여러 자리에서 섬기다 어느새 결혼하게 되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찬양팀에서 보조싱어로 섬기고 있다. 부부가 함께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예배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교제의 현장이라는 것과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실 다음이 기대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남편에게 쓰는 편지’



/ 최성숙 선교사(중앙아시아A국)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어요. 그곳은 어때요? 나는 요즘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당신이 계신 하늘이 궁금해서 수시로 쳐다보네요. 당신과 함께했던 33년은 내 인생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가득 쌓여있어요. 당신은 내게 견고한 성과 같은 존재였고, 마음껏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었으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또 손발이 너무 잘 맞는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당신이 췌장암으로 일 년 동안 투병할 때도 날마다 말씀 읽고 서적을 읽으며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이 나에게겐 아프게 남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을 과연 주님의 뜻 안에서 했는지를 돌아보았지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고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시간이었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었어요.

당신이 췌장암 환자인지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늘 환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잘 생긴 얼굴에 미소까지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요. 당신의 장례식에 오셨던 많은 분이 당신의 영정사진을 보고 기쁨이 충만해졌대요.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딸들과 인사를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외로움을 경험해요. 불현듯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져도 내 어깨를 토닥여줄 당신이 없네요. 그래도 여보, 나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선하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아낼게요.

여보, 저는 내년에 다시 중앙아시아 A국으로 가요.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땅, 사랑하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날까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게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은 하늘 위에서,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기로 해요. 여보,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장로칼럼

러브소나타, 영적 부흥을 꿈꾸며

박성호 장로
(일본어예배)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다.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가 현장에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심 ‘일본의 협력교회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러브소나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기우였음을 알려 주셨다. 이번 미야자키 러브소나타가 대면으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일본의 협력교회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앞다퉈 봉사자로 헌신해주시는 한국과 일본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러브소나타가 이제는 온누리교회만의 전도사역을 뛰어넘어 한국과 일본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공동의 전도집회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현장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미야자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도시다. 일본 고대 신화가 시작된 지역으로 지금도 각종 신사와 신흥 종교의 본부가 많은 곳이다. 작은 도시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기독교의 영향이 매우 약한 지역으로 미야자키시 크리스천이 모두 모여야 1천 1백석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을 겨우 채울 수 있을 정도다. 몇 안 되는 교회들도 성도를 양손으로 셀 수 있는 규모로, 목회자들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설교하는 영세 교회들이 많다. 이

런 영세한 미야자키 교계에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애타게 기다려온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지난 15년동안 일본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러브소나타 문화전도집회로 전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아켜보면, 러브소나타 초기의 일본 교계의 반응은 러브소나타 집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오해와 반발도 있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났고, 이제 32년의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제는 일본 교계에서 정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러브소나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의 ‘일본을 향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일본 영혼의 구원은 한국 크리스천들의 복음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이래, 지난 15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본 영혼 구원을 위해 섬겼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일본 선교는 투자 대비 그 결실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러브소나타 집회에 쏟아부은 열심과 재정을 제3세계 선교에 사용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계속해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여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운 관계에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에게 일본의 영적 부흥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신한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조금씩 일본 교계가 변하고 있다. 서로 연합하고 있고, 일본의 영적부흥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늘어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크리스천들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러브소나타가 일본의 부흥을 불러올 마중물이 되어 일본의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소망해 본다. 이번 러브소나타가 천국잔치로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해 본다.

권사칼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부부의 갈등은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다. 그 첫걸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남녀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갈등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차이는 다르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를 ‘틀렸다’, ‘옳지 못하다’, ‘열등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출발은 서로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보인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남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다. 여자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남의 인생과 아픔에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존재다. 남자들은 다르다. 남자는 아내가 인생이 무의미하다든가 인생은 불행한 거라고 결론 내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예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당신, 얼마나 힘들어? 많이 힘들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미국의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 시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인 마이클 조던의 파격 소식이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가정보다 농구코트로 달려가던 성취지향적인 남편, 그래서 아내는 홀로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부와 명예와 뛰어난 육체적

조건을 지닌 남편이지만, 그 모두가 아내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필요로 한 건 스타가 아닌 곁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이해해줄 남편이었는지 모른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한 농구천재도 가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행히 두 사람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남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진짜 성공의 기본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내들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당장 끌어올리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 현상이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므로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남편은 아내의 기분이 저조하면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고 묻거나 이유를 알게 되더라도 ‘뭐 그만한 일로 그러고 있어. 별것 아닌 걸 가지고’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처져 있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효과만 낼 뿐이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주고,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남편을 원한다. 만약 남편의 조언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말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아내 스스로 더는 가라앉으면 안 되고, 더는 가라앉을 곳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수면 위로 오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아내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빨리 끌어올리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여자는 가끔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애써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아내 뒤에 변하지 않는 남편이 버티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아내 스스로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신앙에세이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주일 새벽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감동 감화 속에 눈을 떴다. 2시 즈음이었다. 내겐 숨은 비밀이 있었다. 수년 동안 새벽 2시경 가슴이 뚫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다 깨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허다하였다.

그 아픔의 우물을 들여다 보면 여러 형상들이 있었다. 고독과 외로움, 죽음, 코로나19, 나와 인간들의 거짓과 죄악, 우리나라 사람들의 악한 말들과 우상숭배, 교회와 목사, 장로들의 불신앙과 타락, 교단 정치의 타락상, 교회에 대한 교회 안팎의 공격, 세상의 종말, 심판!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전율하던 밤이 허다하였다. 실제로 가슴팍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성흔으로 고통받았다는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가나인 고통의 날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다.

나는 그럴 때 물었다. “주님 이 고통의 우물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일로 아내도 걱정했다. 아내는 “그렇게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나도 드릴 것 다 드리고, 주님께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갈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통이 무슨 일인가! 주님은 떠나 계신 것인가! 아니, 주님의 고독이 이런 것이었을까? 나와는 비교될 일이 아니다!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세상 죄에 대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때론 육신에 갇힌 존재가 겪는 허탄함과 무기력함이라 여기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다만 주를 바라

어느 날 밤 성령의 탄식과 위로

며 회개와 기도의 시간으로만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 한없는 평화와 은총이 밀려들며, 죄와 사망의 가시가 빠져나가는 감동이 밀려온 것이다. 이 때 음성이 들려왔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일순간 지금까지 깨닫고 믿어왔고 행하여 왔고, 광야를 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해 왔다고 한 그 모든 것으로도, 회개로도 씻기지 않은 고통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새벽에 말씀을 펴서 읽게 되었다. 펴서 읽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4-27).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5-58).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끝없는 위로와 평화와 자유함이 밀려왔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으로,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주여! 이 은혜가 나의 생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는 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도우시는 성령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말씀이 29절과 30절입니다.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섯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위대한 사슬’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원의 위대한 사슬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만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29-30절).

첫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예정하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랑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리 안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호라이즌(horizon)’의 어근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예정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는 구원할 것으로 정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것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정은 우리 편에서

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아셨고, 타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니까?”라는 주장은 완벽하게 예정론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예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예정론의 근거가 된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다보니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랬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만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만자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적인 의미로 만자들의 영광,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한 세트라면 그 중간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심이요, 내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잡아당기시는 부르심입니다.

셋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칭의’와 ‘영화’만 나오고 왜 ‘성화’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실현될 것은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29-30절에 기록된 다섯 단계 모두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에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등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거룩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광스럽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에 영화롭게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전한 믿음은 현재에서 불투명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확실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망과 비전은 확실한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실함을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구원의 확실함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이곳의 부흥을 믿는 가장 큰 이유

무슬림 국가에서 지내다 보면 때로 한계를 느끼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기회가 있었다.

E라는 친구가 있다. 정부산하 부처에서 제법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친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대화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E가 기독교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삶이 무슬림들보다 의롭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대접에 대한 답례로 호의를 보이는 건가 싶었지만, 언제나 진솔하고 정직한 친구라 기대감이 생겼다.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E가 크리스천들의 삶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E는 코란의 여러 곳에 모순이 많으면서 ‘알라를 위해 순교한 자는 나

원에 가면 72인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는 교리를 지적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도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한다면서 그 예로 이 나라에 와서 수고하는 기독교 NGO 단체에 소속된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어릴 때 어머니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 놓고 생활한 기억이 난다고 고백했다. E가 늘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잘 도와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E와 같이 이슬람 교리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다.

성령님이 우리 부부 마음에 새겨주신 믿음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중동지역에서는 거의 드물게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주위의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무슬림이면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사회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또 이 나라는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다. 정부 각료 중에서 최소 한자

리를 기독교인에게 배정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추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모든 소수민족과 다른 종교들을 아울러 왔던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은 공동묘지에 묻힐 정도로 화합하며 지냈던 옛 기억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하나의 조각그룹은 페이스북(Facebook) 설교 영상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무슬림들이다. 매주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설교 영상을 시청하는데, 교회를 찾아와 성경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는 수가 늘고 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는 25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제법 큰 교회다. M 담임목사와 우리 부부는 언젠가 이곳에서 리브소나타 집회를 열기 위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야의 구름처럼 커지고 있음을 보면서 때로는 흥분을 하기도 한다. 곧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가는 큰길이 생겨서 앗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앗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앗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앗시리아 다음의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앗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사 19:23-25).

백성들이 이집트와 이곳을 오가기 시작했다. 서로를 믿는 대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막인 이곳에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 가장 큰 이유다. / 한상철 선교사(이라크)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암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시인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 대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일시: 10월 29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장소: 국회의사당 둔치 운동장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가족 문의:서빙고총무- 오명석 010-6470-7131 양재총무- 이범진 010-6891-6665 수원총무- 박민규 010-3753-4546 남양주팀장- 권오빈 010-5535-0119 대전팀장- 김성동 010-5454-9338 부천총무- 황근배 010-4727-5258 통일선교학교 일시: 10월 29일~11월 26일 (매주 토 오후 7시 30분~9시) 신청: 아이스쿨 회비: 2만 원 문의: 010-4337-5927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세미나 기획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점직원(분당)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분당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창조과학탐사 모임 일시: 11월 5일 오전 7:00 출발 ~ 6일(주일) 늦은 저녁 귀경(1박 2일) 탐사: 전북 진안(마이산), 부안(채석강, 적벽강), 김제(거자교하) 모집: 선착순 35명(가족 및 타교인 환영) 비용: 10만 원 문의: 김중명 팀장(010-7636-6305)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안쓰고 가지고있는수건(욕실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일대일양육자반 박동현 장로반 일시: 11월 5일~23년 2월 25일 (매주 토 오전 10~12시 30분)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34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	--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증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한계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함께하는 후원

기쁨의 자리로 오십쇼!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는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매주 <오십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분들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CGNTV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혜련 집사



강영순 후원자

선교사와 함께하는 후원

C국 선교사로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 CGNTV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신학 강의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CGNTV를 통해서 배웠던 생각이 떠올라 CGNTV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후원자

땅끝까지 함께하는 후원

저는 어디서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먼 이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CGNTV에 꼭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QR



중액후원QR

CGNTV
함께!
미디어선교